

# '세종시' 연말 정국 최대 쟁점으로

세종시 문제가 연말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이 1일 '세종시 수정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하며 쟁점을 본격 시도한 가운데 정운찬 총리와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를 둘러싼 갈등이 이 같이 복잡한 구도 속에 전개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전체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권 내부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정계개편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종시 문제에 대해 "여야 합의로 입법이 이뤄지고 그 법이 실행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떻게 백지화를 시키느냐"면서 "방법도 비겁하다. 그 지역 출신을 총리로 기용해 그 사람의 손을 통해 백지화하겠다는 태도는 비겁하고 치졸하다"고 비판했다.

## 민주당, 충남지역 돌며 단식투쟁 격려 '쟁점화' 본격 시동

### 여권, 鄭총리 '정면돌파'에 親朴계 '수정불가' 정면충돌

정 대표는 이날 박병석, 양승조, 변재일 의원 등 충청권 의원들과 함께 세종시 건설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을 방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소속 지역위원장을 격려한 뒤 연기군 회의를 열어 지방의회 의원들과 만나 세종시에 대한 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세종시 수정 행보도 계속되고 있다. 정운찬 총리는 지난달 3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세종시를 방문, "주민들이 조금만 참아주면 이곳을 대대손손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피력했다. 또 이날 중순계 자문기구인 가

칭 '세종시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대안 마련 수순을 밟아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을 대야(對野) 및 대국민 설득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여권의 한 기동인 박근혜 전 대표의 세종시 수정 반대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박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종시는 국회가 국민과 충청도민에게 한 약속이지 개인 약속이 아니다. 저의 개인적인 정치 신념으로 폄하해선 안 된다"며 거듭 '수정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도 박 전

대표의 입장에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친박계 한 핵심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와 관련해선 '원안 플러스 알파(α)' 입장을 재차 확인했기 때문에 다 정리가 된 걸로 본다"면서 "우리(친박)쪽에선 더 이상 다른 말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이 박 전 대표 측의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하면서 여권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세종시 문제가 자칫 여권 '잠룡(潛龍)'들간 파워게임 양상으로 변질 수도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차기 경쟁이 조기에 접착되면서 세종시 해법 마련은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 세종시 수정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 총리와 박 전 대표 어느 한 쪽은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친이 주류 측이 논란에 본격 개입할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

# 박정희 절대권력 탄생 도운 '유신 2인자'

## ■이후락 前 중정부장 별세

지난달 31일 노환으로 별세한 이후락(85) 전 중앙정보부장의 인생은 '권력무상',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한번 번성한 것은 반드시 쇠함)' 그 자체였다.

그는 우리 현대사의 암흑기인 '유신 시대'를 대표하는 권력자였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은밀한 정치공작의 '대명사'였다.

이 전 부장은 1945년 12월 군사영어학교 1기생으로 입교, 이듬해 3월 입관한 뒤 1948년 육군 정보국 차장을 지냈다. 이 전 부장이 권력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공보실장을 맡으면서부터. 1963년 박정희 의장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그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일약 권력 핵심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1969년 10월 박 전 대통령은 3선 개헌의 '후폭풍'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를 주일본 대사로 내보냈지만 1970년 12월 제6대 중앙정보부장에 임명되면서 다시 권부 핵심으로 복귀했고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를 총지휘, 명실상부한 '정권의 2인자'로 발돋움했다.

그는 중앙정보부장 재임 기간인 1972년 5월 '대북 밀사'로 평양에



지난 1973년 11월3일 제2차 남북조절위원회 회의차 평양을 방문한 이후락 위원장이 김일성 북한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사상 첫 남북비밀회담...7·4 남북공동성명 성과

### DJ 납치사건 주도 등 中情 통해 무소불위 권력

과전래 김일성 전 북한 주석과 사상 첫 남북비밀회담을 가졌고 '7·4 남북 공동성명'을 이끌어냈다.

이 전 부장은 그러나 1972년 10월 유신 체제를 확립하고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을 주도하는 등 유신의 어두운 역사를 만든 장본인 중 한명이다. 실제로 지난 1998년 6월8일 미국 국가안보기록보존소는 홈페이지에서 '1973년도 비밀 외교문서'라는 자료를 통해 이 전 부장이 '김대중 납치사건'을 주

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0·26 사건'으로 박 전 대통령이 암살되고 신군부에 의한 제5공화국이 출범하자 영원히 정계를 떠나 지금껏 경기 하남에서 도자기를 구으며 집거했다.

이씨 소유의 경기 하남시 자택과 땅은 보험회사 대출금을 갚지 못해 1999년 8월 경매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넘어갔고, 앞서 경기 광주에 있던 도자기 요장과 땅도 1994년 매각됐다.

## "이후락씨 자녀, 美 부동산 다수 소유" 재미동포 안치용씨 주장

지난달 31일 별세한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자녀가 미국에 최대 5천만달러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미교포 블로거 안치용 씨는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시크릿 오브 코리아'를 통해

"고(故) 이 전 중앙정보부장의 자녀는 한국의 재벌일가가 사는 뉴저지주 알파인에 호화주택을 소유한 것은 물론이고 뉴욕 맨해튼의 대형빌딩, 퀸즈의 빌딩, 최근에는 뉴저지주 옛지위터의 대지와 주택을 구입하는 등 부동산 규모가 3천

만~5천만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부장의 큰아들과 작은아들도 미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며 "계약서 스캔 등이 끝나는 대로 그 내역을 차근차근 밝혀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6자회담 우선...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 ■오바마 1년 한반도 정책은

2008년 11월 4일 버락 오바마가 미국 제 44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지난 1년동안 한반도 정책은 계속 '조경'이 이뤄지는 과정을 거쳐왔다.

오바마 행정부는 취임 초 적대국과의 '타프하고도 직접적인 협상' 원칙을 밝혀 부시 행정부 초기와는 달리 북미 대화 자체를 거부하지 않고, 고위급 대화로까지 발전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올 상반기 북한의 미사일 발사, 2차 핵실험 등의 변수와 맞물리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정책은 부시 행정부 1기와 비교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적극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겠다는, 제제 카드를 부각시키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촉구하고,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선의의 무시'(benign neglect)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 8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역류 여기자 석방을 위한 방북 이후 북한의 '유화공세'로 국면이 바뀌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원

칙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6자회담 우선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6자회담을 대체하는 미국 대화는 없다"는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외교노선을 탈피하고 동맹을 중시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인식이 근저에 깔려 있다.

또 북한과의 양자 대화를 배제하지 않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이 대화를 하자고 하더라도 대화 자체를 위해 무조건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의 양자협상 요청에 선뜻 응하지 않고 "비핵화를 위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고, 6자회담 복귀를 약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것도 이 원칙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다 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제제를 풀거나 완화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과거 클린턴, 부시 행정부 때의 협상-합의-과기로 반복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보상은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 폭탄테러 희생자 추모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파키스탄 페샤와르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최근 발생한 차량 폭탄테러의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행사에서 촛불을 켜고 있다. 지난달 28일 여성과 어린이들로 가득찬 시장에서 폭탄을 실은 차량이 터지면서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파키스탄 페샤와르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최근 발생한 차량 폭탄테러의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행사에서 촛불을 켜고 있다. 지난달 28일 여성과 어린이들로 가득찬 시장에서 폭탄을 실은 차량이 터지면서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연합뉴스

## 광주서 5일 '국제 탄소시장' 심포지엄 개최

광주와 전남도가 탄소배출권 거래소 공동유치에 나선 가운데 세계 탄소시장 전문가들이 광주에 모여 세계 탄소시장의 전망과 광주시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광주시는 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독일, 영국 등 5개국 전문가들

이 참여한 가운데 '포스트 교토체제와 세계 탄소시장 전망'을 주제로 제2회 기후변화대응 국제심포지엄을 연다.

독일연방환경자연보전부 장관인 국제탄소행동파트너십(ICAP) 마틴 베르크펠더 프로젝트 매니저가 '세계

탄소시장 사례와 전망'을 발표하고, 주한 영국대사관의 토니 톨렌스 기후변화팀장은 '영국의 저탄소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세계 탄소시장의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광주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개발과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아직 없으신가요? 트라이슈머 시트방수!**

【완전 방수】

트라이슈머 시트방수: 완벽한 단일효과까지!!

www.trishmer.com

10621511-0444

**건물 옥상 지붕 태양광발전소**

입력 부지 면적 선택금액가격 7~8주대수확성!

그만큼 100만도보금사립개발광주

이젠 전기요금 걱정 끝!!!

www.sungijon.com

010-7777-4741

010-7777-4742

010-7777-4743